

조사과장 김 치 영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고기권에서 안정세 보이는 곡 물가격

지난해 6월 미국의 대한발파해로 인해 폭등세를 보였던 국제사료 곡물가격의 여파는 대부분의 사료곡물을 해외에서 수입·조달하고 있는 국내 사료업계와 양축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농림수산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1,072만톤의 곡물(사료용 포함)을 도입, 14억4800만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물량기준으로 87년 1021만3천톤 보다 5% 증가에 그쳤으나 수입대금지급은 무려 30%나 증가한 것이다. 관계자들은 지난해 곡물수입 대금이 급

격히 증가한 것은 세계곡물수출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사상유례없는 가뭄에 따른 흉작으로 곡물가격이 폭등했는데다 종전의 주요 곡물수출국가였던 태국, 중국, 아르헨티나 등도 자국내 사료용 등 곡물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출여력이 떨어져 미국곡물수출에 대한 시장견제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곡물수입에 따른 가격부담이 증가하면서, 국내 배합사료 가격도 두차례 가격인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양축가들의 사료가격 부담도 증가했으나 금년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다. 금년 3월 이후 국내 배합사료 가격은 공장에 따라, 또는 축종별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 내외의 등락을 유지하면서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배합사료 가격인하가 없어 양축가들에게 유리한 여건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타 곡물의 재고부족으로 옥수수에 대한 대체재(사료용소맥, 수수, 호밀등)가 크게 부족하고, 금년들어 강파류(소맥피, 맥새, 곡새등) 가격 등이 급등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년도 미국의 옥수수 식부여건이 불량하고, 미국의 옥수수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수출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주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의 옥수수가격은 지난해 한발 이전의 가격에 비해 30%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대두 또한 8% 가량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곡물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주요 생산국인 미국의 생산량이 지난해의 한발로 크게 줄어든데다 국제곡물시장의 큰 손인 소련, 일본이 대량매입에 나서 수급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곡물재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도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미국의 가뭄으로 폭등했던 곡물값은 미국이 올해도 흉작을 거둘 경우 지난해 보다 더 큰 강세마케팅이 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축산진흥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소련은 88-89 미소 곡물협정연도(88년 10월~89년 9월) 들어서만도 1천3백만톤 이상의 옥수수를 미국으로부터 사들여갔다. 소련의 대량구매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미소 곡물회의에서 이번 곡물협정연도의 연간무역량을 2천만톤(옥수수, 소맥의 합계)에서 2천4백만톤으로 상향조정했다. 앞으로 미국은 소련에 대한 곡물수출량을 늘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일부학자 금년도도 기상이변 예상

사료곡물중 옥수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격형성면에 있어서도 타곡류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료곡물가격을 전망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의 옥수수 생산전망을 살펴볼 수 없다. 금년도 미국의 옥수수 식부작업은 이미 80% 이상 종료되었고, 초반기의 우려와는 달리 기후여건도 상당히 호전되고 있기는 하나, 일부 기상전문가들은 연초부터 이상기온을 예상하고 있어 앞으로도 중요한 생육기간을 남겨놓은 입장에서 기후여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고

로 금년초 미국의 두학자가 전망하는 이상기후에 대한 견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전망은 미국 기상 서비스사의 부사장 피터레비토씨가 NGTC(전미곡물상협의회)회의에서 대양온도가 냉각되는 현상인 라니냐현상을 설명하면서,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건조기후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동부와 북동부의 콘벨트 지역은 수분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지만 중서부지역은 상황이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보면 EC의 기후는 양호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한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소련에 대해서는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언급하였다.

두번째 전망은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후마의 그레이튼대학 기상학 부장 아토·다글라스 박사도 연초 전국목장주협의회 총회세미나에서 “금년은 미국 전체, 특히 중서부 곡물생산지역에 있어서 봄과 여름은 평년보다 매우 건조하고 더울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다글라스 박사는 현재의 한발체계가 갑작스런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4년간의 특이한 따뜻한 봄(1985~88년)후에 오는 현상으로, 1918년, 1935년, 1955년의 한발과 유사하며, 금년도의 습도는 평상시의 80%, 온도는 평년 수준에 비해 2~3°C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일반적으로 4~5일의 단기전

망이 아닌 장기전망은 정확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같은 예측이 적중한다면 금년도 곡물가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차례의 폭등을 예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국내의 기후여건이 양호하며, 식부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다소간의 위안이 되고 있으나, 아직도 중요한 생육단계를 남겨두고 있어 전망에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요 사료곡물 수출국 동향

한편 미국 이외지역의 주요사료곡물 수출국등의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남아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수출여력이 크게 감소하였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금년도 작황부진과 자국내 사료용 수요증가로 인해 사료곡물 수출 여력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의 한발로 인해 생산농가에서는 출하를 기피하고 있고, 일부 옥수수 및 수수농장이 목장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수출여력의 감소와 함께 예기치 않았던 이란, 쿠바와의 수출계약으로 인해 전통적인 수출시장인 소련과의 거래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아르헨티나의 사료곡물생산량은 1,

300만톤이었으나, 금년에는 830만톤 수준으로 감소했고, 수출량도 520만톤에서 360만톤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옥수수공급이 크게 위축되면서 극동 아시아마켓을 점차 미산 옥수수에 잠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태국산 옥수수는 미산 옥수수에 비해 10불정도 낮은 가격으로 팔리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최근에는 10불 높은 가격으로 호가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태국은 수송비용의 저가, 선적규모의 신축성, 선적일정 때문에 아직도 수출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태국은 지난해 300만톤의 옥수수를 수출했으나 금년에는 490만톤의 옥수수를 생산해 260만톤의 옥수수를 수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금년도의 풍작 등으로 인해 앞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790만톤의 사료곡물을 생산했으나 금년도 생산예상량은 1170만톤이며, 수출량도 지난해는 80만톤 수준에 머물렀으나 금년에는 200만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밖에 중국도 자국내 사료용 수요증가 등으로인해 옥수수 수출을 통제하면서 점차 수출국대열에서 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금년들어 수수 수출이 다소 호조

를 띠고 있으나, 옥수수는 앞으로도 수출전망이 불투명하다.

○남아공 백옥수수의 등장

한편 이상과 같이 미국의 옥수수 생육이 아직 안정권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고, 주요 수출지역의 사료곡물 수출여력이 충분치 못해 불안한 가운데, 최근 국내사료업계에 미산옥수수 가격에 비해 5불 이상 낮은 가격의 남아공옥수수가 등장하고 있어, 사료업계에 새로운 가격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에 위치한 유일한 옥수수 수출국으로, 전체경작지중 약 40%를 옥수수경작에 이용하고 있고, 수확량은 강우량이 양호했던 1981/82년에는 1466만톤(헥타당평균 수확량은 3.325톤)을 기록했고, 한발피해가 극심했던 1983/84년에는 408만톤(헥타당 평균수확량은 0.985톤)으로 근래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수출수량은 1981/82년에는 592만톤으로 피크를 이루었고, 1983/84년에는 역으로 239만톤이 수입되었다. 그리고 1987년과 1988년도는 건조기후(Hot and Dry Weather)로 인해 707만톤 733만톤 생산하면서 수출이 중지되었다.

남아공에 있어서 옥수수는 주요

수출 농산물이며 외화획득에 공헌해 왔으나, 지난 2~3년 전만해도 국제 옥수수가격의 하락으로 매상을 담당하는 남아공 옥수수위원회 (Maize Board)가 적자부담까지 안게 되었지만, 지난해 5월 이후부터 미국의 대한밭로 국제 옥수수가격이 급등하면서 여건이 크게 호전되고 있다. 금년도 남아공의 옥수수 수확면적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식후옥수수생육에 충분한 강우가 꾸준히 있어줌에 따라 풍작을 이루게 되었다. 5월 11일 미국 농부성이 발표한 88/89년 남아공의 옥수수 생산추정량은 1100만톤이며 200만톤정도를 수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부 일본종합상사들은 350~400만톤수준까지 수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아공 옥수수는 크게 노란색옥수수 (Yellow Maize)와 흰색옥수수 (White Maze)로 나뉘어지는데 과거에는 노란색옥수수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흰색 옥수수가 60:40으로 약10% 앞서고 있다. 이같이 흰색옥수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과거 남아공 옥수수위원회 (Maize Board)의 매상가격이 흰색옥수수와 노란색옥수수가 동일 했으나 최근 흰색옥수수가 더 높게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남아공의 백색옥수수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일본이 전분가공업계나 대만

의 사료업계에서는 미산옥수수보다 10불가량의 높은 프리엄을 지불해가며 구매, 사용해 왔다. 일본의 전분업계가 남아공의 백색옥수수를 선호했던 이유는 백색옥수수 (White Maize)의 경우 전분수율이 미산옥수수보다 훨씬 높아 공업용으로는 더욱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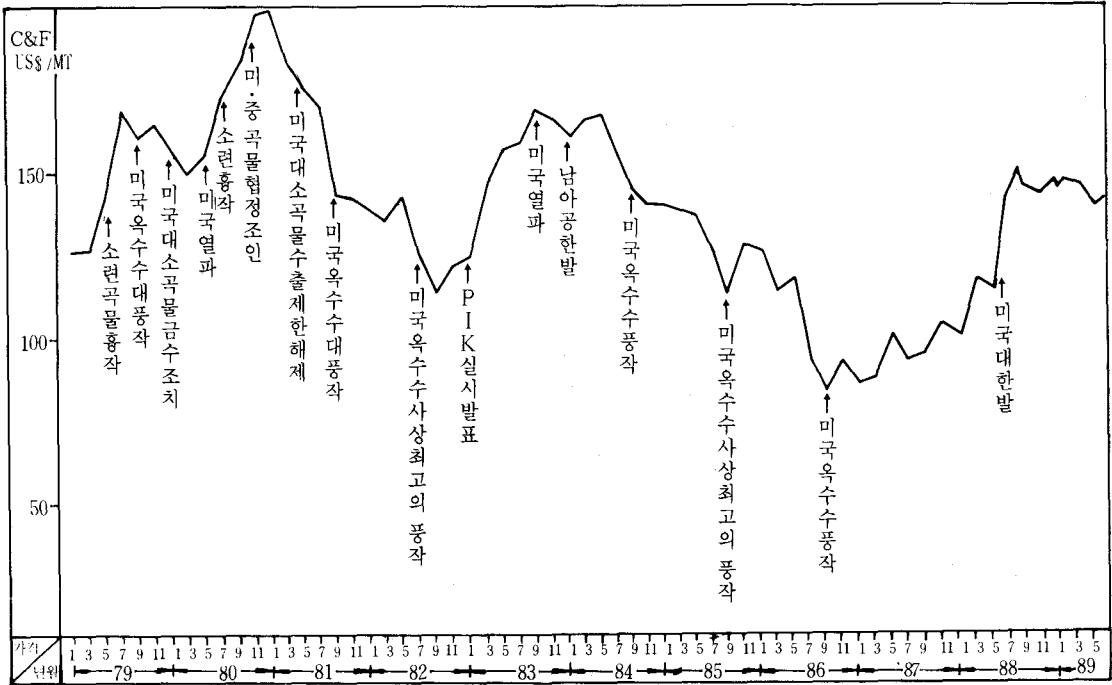
그러나 금년도 남아공이 미산옥수수보다 5불 이상의 디스카운트를 적용하여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이유는 금년도 남아공의 옥수수 수출여력이 크게 증가한데다 일본, 대만 등이 정치·경제적인 이유로 남아공과의 무역확대를 꺼리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주요 사료원료 시세 동향〉

(C&F, US\$/MT)

품 목		원 산 지	1월	2월	3월	4월	5월 현재
곡 류	옥 수 수	미 국	146	145	147	143	143
		태 국	146	147	150	-	-
		아르헨티나	154	153	153	152	156
		남 아 공	-	-	-	-	140
	수 수	미 국	136	137	137	134	140
		중 공	126	127	123	122	123
		아르헨티나	138	137	138	135	142
	소 맥	호 주	-	-	-	-	-
		캐 나 다 E C	-	-	-	-	-
	호 밀	캐 나 다 E C	-	-	-	-	-
미 국		150	150	-	-	-	
강 피 류	소 맥 피	인도네시아	108	109	119	130	130
		쓰리랑카	108	109	119	130	130
		아르헨티나	108	118	125	133	133
	G S P	캐 나 다	98	102	105	110	115
타 피 오 카	태 국	58	65	70	71	80	
식물성박류	대 두 박	미 국	326	308	310	294	277
		중 공	307	297	292	285	275
		브 라 질	340	308	303	293	275
	채 종 박	캐 나 다	225	224	222	212	220
		인 도	137	125	122	121	123
		중 공	153	150	148	148	149
해바라기박	아르헨티나	190	-	-	-	-	
	중 공	-	-	-	-	-	

미국산 옥수수 가격동향



아무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가격문제와 옐로우칼라의 선호때문에 구매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금년 남아공옥수수의 구매로 인해 향후 미산 옥수수 가격상승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체품목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 하반기 사료가격 안정유지 전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년도 사료곡물 시장이 불안정하면서 가격이 고가권에서 형성되고 있

음에도 배합사료 가격은 지난해 이후 두차례 가격인상을 통해 어느 정도 흡수된 형편이어서 아직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심할 수 없는 것은 금년도 하반기 사용분 곡물구매가 약 3개월 이후분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4~5개월분의 사료곡물을 추가구매 해야 하는 입장이다. 현재의 시세 대로라면 큰 가격부담이 없으나, 미산 옥수수의 작황이 아직 중요한 변수로 남아있고, 대체재인 남아공옥수수와 중공산 수

수등의 수출여력도 미지수로 남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사료업계는 양축가들에게 생산비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는 하반기 잔여분에 대해서도 가격부담이 없는 선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하반기 배합사료가격은 현상황에서 볼 때 안정세가 유지될 전망이다에 따라 양축가들이 경영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축산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축산물 판매가격을 높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